

순천 자원봉사자 5만명 돌파 '눈앞'

현재 4만9438명...시민 10명 중 2명 꼴 문화·생활편의 '집중' 보건·환경 '외면'

순천시 10명 중에 2명 꼴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조만간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순천지역에서 자원봉사 열기가 뜨겁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순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모두 4만9438명으로 전체 순천시민의 17.8%에 해당한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올해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시민은 1만4367명으로, 연간 활동 봉사자는 10만9527명에 달한다.

생활편의 분야에 2만6717명, 문화 행사분야에 2만1991명, 안전·방법분야에 1만8392명 등이 자원봉사하는 등 도시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보건 의료 및 농어촌 분야에 129명, 환경보호 분야에 2313명, 교육·상담 분야에 3391명 등만이 참여해 분야 별로 자원봉사 참여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20대 이하가 2만6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만4796명), 20대(1만3091명), 60대(1만3056명), 30대(7561명), 50대(5987명), 70대 이상(428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원봉사 시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학생들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연간 활동봉사자 10만9527명 중 여성이 6만1776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남성이 4만7751명(44%)이었다.

지난 1년간 평균 봉사 횟수는 3차례로, 1인당 평균 봉사시간은 32시간, 총 47만7072시간에 달한다. 특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자원봉사는 모두 1679명으로, 이 가운데 순천시민이 1228명으로 72.3%를 차지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최근 열린 제8회 순천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순천시는 "순천시 미래의 100년, 행동하는 시민의 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합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고흥군 시설원에 사업 확대

농가 고소득 작목...내년 60억 투입 생산기반 조성

고흥군이 시설원에 작물 소득이 타 작목보다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시설원에 분야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25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설원에 품질개선,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에 20ha, 60여억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군비 5억9600만원을 확보, 보다 많은 농가에게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별 재배품목 및 시설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직접 신청을 받는 맞춤형 사업을 시행, 현지평가와 농정성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년 1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흥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균기온이 높아 난방비 절감에 유리할 뿐 만 아니라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착과율이 높은 시설원에 국내 최적지로 꼽힌다.

고흥에서는 120ha의 시설원에 재배면적에 연간 1만4000여를 생산해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첨단 유리온실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연간 900여이 수확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설원에 분야가 소득 창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소득 작목 육성 및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여수시, 올해를 빛낸 '시정 10대 성과' 발표

'관광객 1000만명 시대' 1위 올라

여수시가 '2013년을 빛낸 시정 10대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25일 "각 부서 별 올해 추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 10대 성과를 최근 선정했으며, '여수 관광객 전년 명 시대 개막'이 올해 최고의 시정성과로 꼽혔다"고 밝혔다.

지난 8일까지 공식 집계된 관광객 1003만 명 유지 실적은 지난 2011년 대비 48%, 지난해에 비해서는 40% (세계박람회 관람객 제외)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관광에 대한 인지도 상승은 외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여수시는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

에서 실시한 올 여름 가고 싶은 호남 휴가지 1위에 선정됐다.

전해의 비경을 자랑하는 거문도·백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중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세계박람회 이후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선정됐다.

시는 시보건소를 비롯한 9개의 공공청사를 신축하면서도 51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다.

각종 관공사와 용역에 대한 철저한 계약심사, 자체 합동설계단 운영, 고급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을 통해 19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구봉산 메탈아트 봉수대 점등식. 지난 24일 오후 이성용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봉산(473m) 정상에서 디지털 메탈아트 봉수대 점등식이 열렸다. 구봉산 전망대와 봉수대는 구봉산 권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3월 사업에 착수, 최근 준공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순천 환경미화원 정년 60세로 연장

순천시는 25일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제19조에 의하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하고 순천시환경미화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순천시는 122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전북

남원 '힐링 숲길' 잇따라 조성

올해 왕재산·달궁마을 이어 내년에도 추진

남원시가 숲길(등산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 착수 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숲길 조성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투입해 왕재산(남중뚝산) 숲길 5.5km에 비거림 모정, 평상, 원주목 계단, 벤치의자 등을 설치하고, 주천~ 밤재 7km 구간에는 휴관 설치, 석축 쌓기, 화장실 설치, 노면 정비 등의 사업을 마쳤다.

또 달궁마을 오솔길 데크, 기린봉 입구에 등산객을 위한 먼지떨이계, 금지면 만학동에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현재 남원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숲길은 등산로 119km, 백두대간 42km, 둘레길 44km로 모두 205km다. 시는 숲길은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갖춰진 만큼 앞으로의 사업은 새로운 숲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숲길에 있는 낡고 훼손된 편의시설을 보수·보강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 위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에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에서 가까운 숲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되는 5~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향토농산물 활용 기능성 장류개발 활짝

하반기 농림부 기술개발 과제 선정-연구비 13억 투입

순창군의 '향토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 장류개발' 연구과제가 2013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에 선정됐다. 군은 이에 따라 '장류 융합기술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을 대표하는 향토자원의 재배면적이 농가소득과 연계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기능성 향토자원과 순창토착 기능성 미생물이 융합되면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만들 수 있으며 과다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장류에 접목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기능성 식품소재를 장류에 적용함으로써 장수고장 순창의 위상에 맞는 향산화, 항노화 관련 기능성 장류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가공형태에서 기술혁신형 기능성 장류로 진화할 수 있는 핵심동력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체돼 있는 순창 장류시장이 2015년에는 5000억원 시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이번 연구는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선행연구과제 성과를 활용해 기획됐으며,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전북대 RRC(지역혁신센터), 원광대 대사성질화연구소, 순창문물재민연구소가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순창을 대표하는 향토자원의 재배면적이 농가소득과 연계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기능성 향토자원과 순창토착 기능성 미생물이 융합되면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만들 수 있으며 과다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장류에 접목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기능성 식품소재를 장류에 적용함으로써 장수고장 순창의 위상에 맞는 향산화, 항노화 관련 기능성 장류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가공형태에서 기술혁신형 기능성 장류로 진화할 수 있는 핵심동력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체돼 있는 순창 장류시장이 2015년에는 5000억원 시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1778억 지원

전북도는 25일 "한·미, 한·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축산분야 발전에 177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투자액 1622억원보다 6.9%(116억원) 늘어난 액수다. 도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축사 시설 및 환경개선, 품사료 재배면적 확대, 구제역·AI 등 선진방역 체계 구축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FTA대비 축산업 경영안정분야에 303억원, 품사료 재배면적 확대분야에 578억원, 가축방역 분야에 307억원, 축산물위생유통 분야에 63억6000만원, 말산업육성 분야에 45억5000만원 등이다. /전주·군산=백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남원시는 25일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26일부터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감사실·총무과 4개팀 12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분청, 사업소, 읍면등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재난대응 태세·이행 실태, 업무관련 항응·금품·선물수수 행위, 음주운전·품위손상, 공무원복무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와 특정후보의 선심성 행정 등 공무원의 편성해 분청, 사업소, 읍면등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재난대응 태세·이행 실태, 업무관련 항응·금품·선물수수 행위, 음주운전·품위손상, 공무원복무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 2014년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한 정읍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118개 사업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8개 분야 118개 사업을 확정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전주역사박물관, 갑오년 말띠해 '특별전' 개최

전주역사박물관은 25일 "갑오년 말띠해를 맞아 내년 2월 23일까지 특별전 '달리자, 청마(靑馬)야'를 연다"고 밝혔다.

십이지와 말, 말의 상징, 말과 신앙, 일상생활 속 말, 말의 생애, 군마, 우리 지역과 말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이 그린 '쌍마도', 말 위에서 술을 마실 때 쓰던 '마상배', 무덤에 넣는 부장품인 '철마용', 인물이나 동물을 본떠 만든 '마형토우' 등 유물 50여점을 선보인다.

새해 염사쓰기, 포토존 등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주·군산=백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용동면 의용소방대 신축 청사 완공

정읍시 용동면 의용소방대 신축 청사가 완공돼 지난 23일 김생기 시장,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 김대중 도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기관단체장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

용동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의용소방대로서는 처음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 연면적 83㎡에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됐다.

김 시장은 "의용소방대 건물 준공을 계기로 화재진압 및 재난구호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청 산하의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 단체로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현장에 출동해 초기 소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상수도 동파사고 예방 점검

순창군이 최근 편성한 '상수도 동파사고 예방 대책반' 소속 반원들이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 군은 순창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수도계량기를 일제조사해 동파 방지를 수도계량기 바꾸고 상수도 누수 예방 활동을 나서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